

동아프리카 무형유산 NGO의 공헌과 전망

존 드 코닉

우간다 비교문화재단 대표

개요

동아프리카 지역은 대체로 무형유산이 방치된 상태이며, 무형유산 NGO가 활동하는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다채롭고 풍부한 무형유산의 증진과 보전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고, 문화유산은 이 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엄청난 개발 난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화에 덧씌운 오명과 역사·종교·사회 요인들과 문화 양식 보전을 위한 가용 자원의 제약 때문에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지원이 거의 부족한 탓에 활동은 단편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NGO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 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무형유산 NGO는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지역의 경제·문화·역사 배경을 간략히 짚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형유산 NGO의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 관찰자들의 시각이나 글을 보면 아프리카의 현실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어느 한 특성으로 규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동아프리카 지역만 하더라도 인구가 무려 1억 5,000만에 이르며, 이 지역에 한정하여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그 잔재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지만 문화 측면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 예로 우간다는 헌법상 65개 이상의 민족 집단이 존재하고 통용 언어가 무려 45개가 넘는다. 식민 통치 이후 공용어가 된 영어를 쓰지 않으면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문화 다양성 이외에 동아프리카 지역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공통된 특성은 바로 한국이 달성한 것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만한 국가 역량이 없다는 점이다. 독립 이전에는 우간다가 한국보다 더 잘살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간다를 원조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NP)의 차이도 급격히 벌어졌다고 탄식하는 우간다 국민도 더러 있다(1인당 GNP의 경우 미화 기준 우간다는 551달러, 한국은 2만 2,590달러). 동아프리카 지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원인은 내전, 높은 자원 수출 의존도, 교육 및 인프라 투자 부족 등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 글의 목표는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에 맞게 빈곤 심화로 인한 문화유산 보전 활동과 정책의 부재를 다루고자 한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인구의 25%가 미화 1달러 미만의 최저생계비로 살아갈 정도로 만성 빈곤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문화유산 보전 문제보다 당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식량과 초등교육 및 기초의료 등 기본 인권 혜택을 확보를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동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과거 식민통치 세력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사회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극심한 빈곤 때문에 문화 부문에 대한 지원 여력이 없다는 현실은 산업과 NGO 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간다의 문화 부문 예산은 가용 국가 예산의 0.03%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육

부문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문화 관련 교육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문화 관련 교육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각국 정부가 헌법, 문화정책, 유네스코 협약을 포함한 국제협약 비준 등을 통해 법률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무형유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정치계의 지원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동아프리카 지역은 서양 선교사들의 기독교 전파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이들 선교사는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관습을 이단이자 사탄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간이 흘러 기독교가 이 지역의 대표 종교로 자리 잡을 만큼 영향력이 막강해지자 교회는 아프리카 토속 유산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며 오명을 덧씌우기 시작했다.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와 선교 단체가 득세하면서 학교 교육 역시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와 지식을 업신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특히 구전문학과 토속 문화 양식은 서양 중심의 교과 과정과 문화 관습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문화 말살 정책의 영향으로 동아프리카인들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신들의 문화 뿌리와 다양성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쓸모없는 원시풍의 전통문화는 버려야 한다고 지금까지 배워 왔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무형유산을 비롯한 문화는 공동체와 국가 발전에 악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발전이 있었으나 기관 형태를 갖춘 NGO들은 이 지역의 토착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곳 출신도 아니다. NGO는 대부분 외부 공여기관이며, 따라서 정책 방향과 원조 동기에 따라 우선순위와 의제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화는 국제 원조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GO는 주로 물자 지원과 그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운동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다른 형태의 조직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동체와 종교에 기반을 둔 이들 조직은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NGO보다 마을 주민들과 더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NGO 활동 분야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무형유산의 증진과 보존은커녕 문화 부문에서 활동하는 NGO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우간다에서는 소수의 NGO가 활동하고 있으며,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무형유산 보호 관련 활동: 예를 들어 이름 짓기라는 문화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 우간다 서부 지역에서 조직돼 활동하고 있는 엔가부 자 투르(Engabu za Toor)는 최근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유산 목록에 해당 유산을 등재하는데 성공했다. 우간다 북부의 소규모 시민단체 또한 이 지역 민족 공동체의 무형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공연예술 관련 활동: 2006년에 창단된 바임바문화재단(Bayimba Cultural Foundation)은 지역 고유의 문화 표현물을 선보이는 연례 축제 개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성공했다.

전통 제도 복원 활동: 지역NGO 월드 보이스 우간다(World Voices Uganda)는 활동 지역의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전통의 법정 분쟁 조정 기능 복원에 노력하고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유효하고 저렴하며, 지역 문화와 양립하는 가치 체계에 뿌리를 둔 사법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화유산 교육: 우간다비교문화재단(CCFU)은 '문화유산교육 과외활동'을 실시하는 60개 중·고등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이와 관련된 교육 과정 및 자료를 해당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CCFU는 또한 문화유산 교육을 정식 교과 과정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구전 전통 및 표현 관련 활동: CCFU는 구전 전통 및 표현물 보호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한 예로 언어 보전을 위한 기록 작업이 전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소수 민족을 위해 언어경시대회를 개최해 왔다. 현재 13개 소수 민족 집단이 CCFU의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NGO인 코게레재단(Kogere Foundation)과 네비문화단(Nebbi Cultural Troupe)은 문화 가치가 담긴 표현물로 젊은 세대에게 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 전달에 노력하고 있다.

문화관광 및 자연과 우주 관련 지식 활동: 이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도 소수 존재한다. 우간다 공동체관광협회는 바트와(국립공원이 된 숲의 원주민인 피그미족)라는 소수 종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광객을 위한 문화 탐방로를 개척한 NGO다. 협회는 다양한 유·무형 유산을 관광객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동식물협회(FFI)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FFI는 '문

화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우간다의 국립공원 관리 담당 기관인 야생동물보호국 및 국립공원 인근 공동체와 함께 신전을 비롯한 공원 내 문화 유적지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전통 약초와 관련된 지식 보전에 앞장서는 아프리카 전통약초증진협회(PROMETRA)와 약초요법사본초가협회(THETA)는 약초를 비롯한 자연물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전해지는 약초 관련 전통 지식 보전을 위해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공동체 박물관: 우간다에서는 공동체 박물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박물관 수는 30개에 달하며, 소규모 박물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유·무형유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공개하여 유산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박물관은 외부 지원으로 우간다 공동체박물관협회를 설립했다.

국가 무형유산 연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CCFU는 사례 연구로 유산의 다양한 특성을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CCFU의 사례 연구 대표 프로젝트로는 '통치와 문화', '문화를 통한 HIV/AIDS 위기 극복'이 있다.

이 밖에 유산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 NGO로 아테리얼 네트워킹(ARterial Network)가 있다. 또한 아프리카 유산개발센터(Centre for Heritage Development)와 동아프리카 문화개발(Culture and Development East Africa) 등과 같이 연수와 사회사업에 초점을 맞춘 NGO가 있다. 정보 및 자원 동원에 중점을 두는 NGO도 있다.

도전과제

이렇듯 활발한 활동에도 무형유산 NGO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의 수가 매우 적다. 유산 보전에 앞장서는 시민단체 네트워크 형성은커녕 캠페인조차 실시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NGO 활동이 지역 또는 전국 규모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단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극소수에 불과한 무형유산 NGO는 공여 기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는 NGO에 대한 후원 계약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제 설정, 활동, 지속 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NGO 활동은 공여 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 부문의 주요 당사자는 정부라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고, 정부는 NGO와의 협력 관계를 맺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지원이 매우 한정돼 있어서 NGO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규모는 이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다.

NGO는 또한 경험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문화유산이 경시되거나 개발 목표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되다 보니 NGO가 경험을 통해 학습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NGO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통 지식은 버려진 채 서양의 교과 과정을 따르고, 해당 지역 언어와 문화가 아닌 외국 학문과 지식 습득을 중시하며, 지역의 전통 기술과 지식에 근거한 혁신을 전대시하는 지역 교육 환경이 하루 속히 변하지 않으면 NGO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전망

수많은 도전 과제가 있음에도 무형유산 NGO에 낙관론을 제시하는 데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앞에서 언급한 많은 활동은 시작한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 전에는 NGO 활동 또는 참여가 전무했다. 이는 여전히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화 부문, 특히 무형유산 관련 쟁점에서 NGO의 참여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두 번째로 각국 정부와 NGO의 협력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자원 및 대민 지원 여력이 떨어졌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고, NGO가 정부 활동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우간다 내 세 곳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의 기금 지원은 정부와 NGO의 협력 분야를 넓힌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광 부문의 성장은 잠재된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우간다는 현재 케냐 및 탄자니아와 함께 세계 주요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많은 관광객이 여전히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 환경을 즐기러 이곳을 찾는다. 그러나 문화관광이 '고전 여행'에 포함되는 주요 부속 활동으로 점차 각광받고 있다. 일부 NGO는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 관광이라는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탈식민 세대가 통치하는 독립 국가로서 고유의 해결책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무형유산이 해결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형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